

주간 전남농업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 September

VOL. 202

2018년
9월 셋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정책동향

추석 앞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세로 전환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올 추석은 해피굿팜에서 우리 농산물로 선물하세요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업기술원,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종자 분양

전남농업기술원, 중국 체험곤충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목차 및 요약

▶ 1. 주간 날씨정보 5

- ▶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4~20도, 최고기온: 25~27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음
- ▶ 강수량은 평년(3~8mm)보다 적겠음

▶ 2. 농산물 관측정보 6

- ▶ 과일류 관측
- ▶ 과채류 관측

▶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0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4

- ▶ 완도산 쌀, 말레이시아 첫 수출
- ▶ 순천시, 농수특산물 미국 LA 교민 입맛 사로잡아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6

- ▶ 전남농업기술원,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종자 분양
- ▶ 전남농업기술원, 중국 체험곤충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성황
- ▶ 전남농업기술원, 돌발해충 성충기 공동방제기간 운영
- ▶ 국산 포도 홍주씨들리스 껍질째 먹어도 맛있어요
- ▶ 추석에 먹을 품질 좋은 과일은 어떻게 고를까?
- ▶ 키다리병에 강한 벼 선발 기술 개발
- ▶ 환절기엔 가축도 면역력 똑 질병 관리 주의



6. 정책 동향 23

- ▶ 2019년산 마늘, 양파 과잉생산 우려
- ▶ 추석 앞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세로 전환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25

- ▶ 나주시, 과일로 사랑을 전하세요... 샤인머스켓 첫 출하
- ▶ 광양시,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 담양군, 추석 선물 담양 명품 농특산품으로 준비해요
- ▶ 해남군, 참깨·들깨 가공상품화로 융복합산업 박차
- ▶ 장성군, 농특산물 추석선물로 딱이야!

8. 해외 농업정보 30

- ▶ 일본, 홋카이도 지진... 식탁물가에 직격탄
- ▶ 자율주행 식품 배달 서비스인 AutoX 런칭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9.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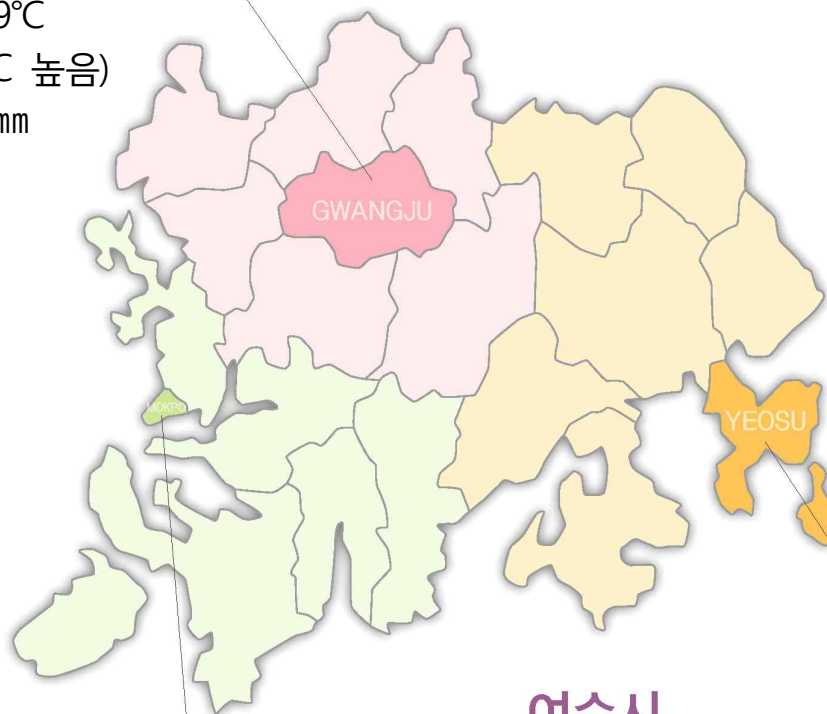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35

- ▶ 제6기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모집
- ▶ 전남 농수산물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 올 추석은 해피굿팜에서 우리 농산물로 선물하세요
- ▶ 청렴한세상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21.2℃
(평년대비 1.1℃ 높음)
- 최고기온 : 26.5℃
(평년대비 0.6℃ 높음)
- 최저기온 : 16.9℃
(평년대비 0.6℃ 높음)
- 강 수 량 : 4.2mm



목포시

- 평균기온 : 21.6℃
(평년대비 1.4℃ 높음)
- 최고기온 : 26.4℃
(평년대비 0.2℃ 높음)
- 최저기온 : 17.9℃
(평년대비 0.5℃ 높음)
- 강 수 량 : 4.7mm

여수시

- 평균기온 : 21.8℃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25.2℃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19.0℃
(평년대비 0.3℃ 높음)
- 강 수 량 : 3.9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산물 관측정보

< 과일류 관측 - 올해 추석 성수기 과일 출하량 감소 전망



📌 추석전망 : 추석 성수기 사과·배·단감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사과(홍로)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만 5천~3만 8천원/5kg 전망
- 배(신고)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7천~3만원/7.5kg 전망
- 단감(서촌조생)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만 5천~3만 8천원/10kg

📌 가격전망 : 포도·복숭아 가격 전년 대비 상승

- 하우스온주 가격은 출하량 증가하나, 품질이 양호하여 전년과 비슷한 4,900원/kg 내외 전망
- 포도(캠벨얼리)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만 7천~1만 9천원/5kg
- 포도(거봉)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만 1천~1만 3천원/2kg
- 복숭아(엘버트)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만 5천~2만 8천원/4.5kg

📌 생산량전망 : 감귤을 제외한 주요 과일 생산량 전년 대비 감소

- 사과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5% 감소 전망
- 배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21% 감소 전망
- 노지온주 생산량은 재배면적 감소하나, 단수 증가로 전년보다 1% 증가 전망
- 포도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0% 감소 전망
- 복숭아 생산량은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5% 감소 전망
- 단감 생산량은 재배면적 및 단수 감소로 전년보다 10% 감소 전망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과채류 9월 출하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9~10월 정식의향 (전년 대비 증감률)

									
	일반토마토	대추형 방울토마토	백다다기오이	취청오이	청양계꽃고추	일반꽃고추	애호박	수박	딸기
9월	1%	1%	3%	2%	-9%	-4%	-8%	-6%	1%
10월	2%	2%	2%	-0.4%	10%	8%	15%	3%	-1%

가격전망 : 토마토·청양계핏고추·참외 제외한 과채류 가격 전년보다 높을 전망

- 일반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나 전년 대비 약보합세인 27,000~31,000원/10kg 전망
- 대추형 방울토마토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나 전년과 비슷한 16,000~19,000원/3kg 전망
- 취청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24,000~28,000원/50개
- 백다다기오이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52,000~57,000원/100개
- 청양계핏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하나 전년보다 낮은 51,000~55,000원/10kg
- 일반핏고추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55,000~59,000원/10kg
- 애호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31,000~35,000원/20개
- 수박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보다 높은 1,800~2,200원/kg 전망
- 참외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보다 낮은 18,000~22,000원/10kg 전망

정식의향

- 9~10월 일반토마토·대추형 방울토마토·백다다기오이 정식면적 증가 전망
- 9월 취청오이·딸기 정식면적 증가, 10월은 감소 전망
- 9월 청양계핏고추·일반핏고추·애호박·수박 정식면적 감소, 10월은 증가
- 과채류 9~10월 정식의향면적 전년 대비 증감률

단위 : %

구분	토마토		오이		핏고추		애호박	수박	딸기
	일반	대추형 방울	백다다기	취청	청양	일반			
9월	0.6	1.0	3.2	2.1	-8.6	-4.3	-7.5	-5.6	1.1
10월	1.5	1.9	1.6	-0.4	9.5	7.7	15.1	3.2	-0.6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품목별 도소매 정보

식량작물

(2018. 9. 17. 기준 / 단위 : 원)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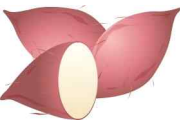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0kg	46,720	46,320	↑	39.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5,920	33,470	38,913	↑	20.1

콩(백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35kg	178,000	177,800	↑	3.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7,760	172,200	155,400	↑	14.5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kg	37,200	39,000	↑	27.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600	29,250	25,460	↑	46.1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0kg	45,800	47,400	↑	15.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3,080	39,600	24,727	↑	85.2

채소류

배추(고랭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kg	14,800	15,200	↓	1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200	17,200	12,613	↑	17.3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8kg	10,400	10,400	↑	1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320	9,240	6,843	↑	52.0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0개	58,000	70,333	↑	14.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61,400	50,667	52,193	↑	11.1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0개	28,000	47,400	↑	27.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000	22,000	19,880	↑	40.8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60kg	1,346,600	1,436,600	↑ 1.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08,000	1,330,000	798,000	↑ 68.7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kg	72,200	68,400	↑ 4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80	69,950	54,330	↑ 32.9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0kg	120,000	120,0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23,000	-	-	-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0kg	15,800	16,200	↓ 38.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920	25,750	20,953	↓ 24.6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0kg	74,200	72,400	↑ 56.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400	47,550	42,827	↑ 73.3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kg	3,080	3,220	↑ 3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00	2,240	1,933	↑ 59.3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5kg	42,400	38,800	↑ 2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280	34,900	31,660	↑ 33.9

수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개	22,600	22,000	↑ 7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400	13,050	12,790	↑ 76.7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kg	48,600	41,800	↑ 22.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0,200	39,800	30,547	↑ 59.1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5kg	30,000	29,800	↓ 5.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080	31,750	18,983	↑ 58.0

과일류

사과(홍로)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kg	51,200	54,800	↑ 4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5,250	43,606	↑ 17.4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5kg	49,800	35,200	↑ 0.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600	49,600	47,287	↑ 5.3

포도(거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kg	15,200	13,400	↑ 29.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60	11,750	9,943	↑ 52.9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0g	8,335	8,108	↑ 1.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61	8,251	7,519	↑ 10.9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kg	5,222	5,230	↑ 5.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207	4,949	5,227	↓ 0.1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30kg	58,000	51,200	↑ 63.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	35,400	39,699	↑ 46.1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kg	56,200	49,800	-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4,720	-	44,655	↑ 25.9

새송이버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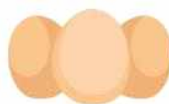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2kg	15,200	15,200	↑ 29.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400	11,700	9,630	↑ 57.8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00g	2,204	2,193	↑ 3.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211	2,136	2,059	↑ 7.0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30개	5,575	5,524	↓ 0.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828	5,591	5,748	↓ 3.0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9/17)	1주일전 (9/10)	전년대비	
1L	2,620	2,613	↑	3.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71	2,527	2,546	↑	2.9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8. 9. 17. 기준 / 단위: 원)

한우(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646	5,710	5,378	↓ 1.1	↑ 7.5
거세	7,027	6,884	6,720	↑ 2.1	↑ 4.6

한우송아지(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210	3,175	3,052	↑ 1.1	↑ 5.2
수	4,195	4,180	3,850	↑ 2.7	↑ 9.0

육우(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770	3,700	2,81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9	↑ 33.8

젖소수송아지(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48	236	12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1	↑ 98.4

돼지(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83	470	480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8	↑ 0.6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570	1,780	1,266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1.8	↑ 24.0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314	1,443	1,22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8.9	↑ 7.0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66	2,266	2,667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0.0	↓ 15.0

4.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완도산 쌀, 말레이시아 첫 수출

- 완도 자연그대로미(米), 할랄 인증 후 첫 성과 -

- 완도군은 9월 10일 완도군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키운 『완도자연그대로미(米)』 할랄 인증 후 전남에서 처음으로 말레이시아에 수출하는 상차식을 가졌다.
- 완도자연그대로미(米)는 청정바다 완도의 해풍을 맞고 자란 고품질 유기농 쌀로 친환경 재배 이력과 미질을 인정받아 까다로운 할랄 인증을 통과하고 수출 길에 오르게 된 것이다.
- 또한 완도 쌀이 말레이시아에 수출을 하게 된 것은 전남 지역 최초의 수출이라는 영광도 누리게 됐다.
- 말레이시아 수출은 완도농협에서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해외바이어(AT)와 할랄인증기관(JAKIM)의 실사와 끊임없이 노력을 한 결과, 지난 5월 할랄 인증을 받게 됐으며 NH무역을 통해 12톤을 수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첫 선적을 시작으로 1년에 6회 정도 선적할 예정이며, 1회 12톤씩 연간 72톤을 수출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출처 : 완도군





순천시, 농수특산물 미국 LA 교민 입맛 사로잡아

- 남도의 향과 순천의 맛을 담아, 미국 LA 현지에서 판촉활동 활발 -

- 순천시(시장 허석)는 장일종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단장으로 한 판촉팀을 꾸려, 9월 13일부터 4일간 미국 LA 시온마켓에서 『남도의 향과 순천의 맛을 담아』를 슬로건으로 우수 농수특산물 판촉행사에 나섰다.
- 이번에 선보이는 품목은 순천농협남도식품, 매일식품, 낙안전통식품, 쌍지뽕, 씨스타, 경덕농수산의 김치류, 반찬류, 젓갈류, 장류, 보리떡, 약과, 누룽지, 해조류, 건어물 등 총 40여개 품목, 23만 달러(한화 2억 6천만 원) 상당이며, LA 현지 교민들로부터 매우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 우수 농수특산물 LA 판촉행사는 4일간 LA 캘리포니아 4개 지점과 애틀랜타, 샌디에고 시온마켓 총 6개 지점에서 동시에 진행하였다.
- 순천시는 지난 8월까지 농수특산물 2900톤, 61억 원을 수출하여 올해 목표 61%를 달성하였고, 금번 성공적인 판촉행사를 통해 올해 수출 목표 100억은 무난히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 순천시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 전남농업기술원, 사료작물 트리티케일 종자 분양

- 우량 종자 보급으로 안정적인 풀 사료 생산 기대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품질 좋은 풀사료 생산을 위해 겨울철 사료작물인 트리티케일 우량종자를 축산농가에 분양한다고 밝혔다.
- 트리티케일은 밀과 호밀을 교잡한 잡종식물로 주로 풀사료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건물 수량은 14~16톤/ha정도 높은 편이다.
- 이번에 분양하는 종자는 트리티케일 우량 품종 조성으로 추위와 건조 피해에 강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재배할 수 있으며 생산량이 많은 장점이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는 종자 확보를 위해 지난해 10월 트리티케일 씨받이밭을 조성하여 올 6월에 수확한 종자를 선별 건조한 후 발아 시험한 결과 90% 이상 싹을 틔운 것으로 나타났다.
- 종자는 10월 상순 분양할 예정이고, 분양 신청 등 재배 관련 정보는 전남농업기술원 축산연구소(061-430-4265)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중국 체험곤충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성황

- 농촌 관광 사업과 연계한 반딧불이 농업, 반딧불이 축제 현황 소개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잠업연구소는 (사)전남곤충산업연합회 회원과 생물방제연구센터에서 운영 중인 산업곤충 창업사관학교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수생곤충인 반딧불이와 뱀잠자리 인공 사육에 성공한 중국 쓰촨성 러산사범 대학교 차오성촨(曹成全)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반딧불 보호구역 설립배경, 인공사육과 대량번식으로 농촌 관광 사업과 연계한 반딧불이 농업, 반딧불이 축제 현황 소개, 새로운 품종 육종 기술 단계에 대한 논의와 함께 중국에서 인삼, 당귀와 함께 보양식으로 알려진 뱀잠자리 유충에 대한 소개로 진행되었다.
- 뱀잠자리는 동물인삼으로 불리며 소아 야뇨증, 노인빈혈, 자양강장, 간염, 간경화, 면역력 제고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 새로운 산업으로서 가치가 있는 약용곤충이다.
- 차오교수는 뱀잠자리 유충의 대량 사육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에 성공한 사례를 발표하면서 친환경 지역인 전남에서 대량사육하여 제품화하기를 권장하였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농업기술원, 돌발해충 성충기 공동방제기간 운영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등 돌발해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농가에 큰 피해를 입힘에 따라 9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를 돌발해충 공동방제기간으로 지정하고 집중방제를 추진하였다.
- 돌발해충은 주로 과즙을 빨아먹거나 나무의 수액을 흡즙하여 피해를 입히며, 배설물로 그을음병을 발생시킨다. 또한 날개가 있는 성충은 9월 이후 농장으로 날아와 나뭇가지 사이에 산란하여 번식하는데, 이로 인해 나뭇가지를 기형으로 만들고 고사시킨다.
- 올해 돌발해충 발생 면적은 1,885ha로 지난해 2,045ha에 비해 약 7% 감소하였으나, 발생 시군은 지난해보다 3개 시군이 늘어난 14개 시군에서 발생했으며, 농업기술원에서는 이동성이 높은 돌발해충의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농림·산림지 공동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김희열 기술보급과장은 돌발해충은 산림지와 인근 과수원을 오가는 서식특성상 동시방제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농가에서는 부득이하게 동시방제가 어려울 경우 산림지역 방제 후 7일 이내에 방제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국산 포도 홍주씨들리스 껍질째 먹어도 맛있어요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껍질째 먹는 아삭한 포도 『홍주씨들리스』 품종을 평가하는 자리를 13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전북 완주군)에서 가졌다.
- 포도 홍주씨들리스는 9월 중순에 익는 씨 없는 품종이다.
- 외국산 빨간 포도인 『크림슨씨들리스』와 비교하면 당도(18.3°Brix)는 비슷하나 산 함량(0.62%)이 적당히 높아 새콤달콤하고 은은한 향이 일품이다.
- 크림슨씨들리스의 포도 한 알은 3.5g인데 비해 홍주씨들리스는 6.0g으로 알이 큰 편이다.
- 재배할 때도 열매가 잘 열리고, 수확기에 과실 터짐 발생이 적다.
- 또한, 포도 알이 잘 떨어지지 않고 저장성도 좋아 시장 가격에 따라 출하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추위에 견디는 성질은 거봉 품종과 비슷한 정도이므로 중부 이북 지역에서는 겨울을 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 홍주씨들리스 묘목은 올해 봄부터 21개 묘목 업체에서 판매를 시작했으며, 앞으로 2~3년 후에는 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 이와 함께 경북 상주시에서는 『캠벨얼리』 대체 품종으로 홍주씨들리스를 선정해 재배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허윤영 농업연구사는 “홍주씨들리스는 외국산 씨 없는 포도를 대체할 뛰어난 품종으로 캠벨얼리와 거봉이 주류인 우리나라 포도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유망한 품종이다”라고 전했다.



홍주씨들리스 품종

* 출처 : 농촌진흥청

📌 추석에 먹을 품질 좋은 과일은 어떻게 고를까?

- 사과와 배는 묵직하고 단단하며 배는 맑고 투명해야, 품종도 따져봐야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추석을 앞두고 과일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을 위해 좋은 품질의 과일 고르는 요령을 제시했다.
- 사과를 고를 땐 들었을 때 묵직한 느낌이 들고 단단한 것이 좋다. 과일 전체에 색이 고르게 들고 꼭지 부분까지도 색이 골고루 잘 들어있는 것을 고른다.
- 과일 꼭지도 붙어 있는 것을 선택하며 꼭지가 시들고 잘 부서지는 것은 수확한 지 오래된 과일로 꼭지에 푸른색이 도는 것이 싱싱하다.
- 올 추석에 구입 가능한 국산 사과로는 『홍로』 품종이 있다. 이 품종은 9월 상순과 중순에 익는 품종으로 과실 크기는 300g 내외다. 올해는 여름철 고온으로 홍로 껍질 색이 예년처럼 빨갛게 잘 들지 않을 수도 있으나 풍부한 일조로 당도는 더 좋다.
- 배는 껍질 색에 관계없이 전체적인 느낌이 맑고 투명하며 꼭지의 반대편 부위에 미세하고 검은 균열이 없는 것이 좋다. 하지만, 최근에는 봉지를 씌우지 않고 재배하는 경우가 늘고 있고, 이런 경우 껍질이 얼룩덜룩할 수 있으나 맛은 더 좋은 경우가 많다.
- 따라서 품종을 확인하고 구입하면 좋은데, 배는 껍질이 노란빛을 띠는 갈색 배와 녹황색 배 등이 유통된다.
- 올 추석에 구입할 수 있는 갈색 배 품종으로는 『창조』(무게 790g), 『신화』(630g) 등이 있으며 녹황색 배로는 『황금배』(450g), 『슈퍼골드』(570g)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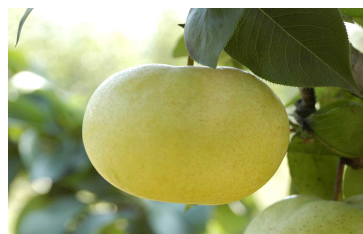
* 출처 : 농촌진흥청



사과 - 홍로



배 - 황금배



배 - 슈퍼골드

📌 키다리병에 강한 벼 선발 기술 개발

- DNA 분석으로 대량 검정... 병에 강한 계통 육성 중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벼 키다리병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병을 이겨내는 유전자(저항성 유전자)를 발견하고, DNA를 분석해 대량으로 검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
- 키다리병은 벼의 키가 비정상적으로 자라다가 결국 말라 죽는 병으로, 2013년 1,500억 원에 달하는 큰 피해를 입힌 바 있다.
- 볍씨를 잘 소독하면 95% 이상의 방제 효과가 있으나 올바른 방법을 따르지 않거나 농약에 죽지 않는 균 등으로 인해 2007년 이후 급격히 발생이 늘면서 벼 농가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인 방제법은 병을 이겨내는 유전자를 갖는 품종을 재배하는 것이나, 현재 이러한 품종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 국내 개발된 키다리병을 이겨내는 유전자를 가진 품종 : 밥쌀용 품종 새누리·하리아미, 영진, 특수미 아랑향찰벼, 통일형 벼 세계진미 등**

- 농촌진흥청은 외국에서 들여온 자원에서 키다리병을 이겨내는 유전자를 확인하고, 이 DNA를 이용해 키다리병에 강한 벼 품종을 선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또, 이 내용은 벼 분야 국제학술지인 Rice에 게재됐으며, 개발한 선발마커는 특허출원했다.
- 이번에 확인한 유전자는 기존에 밝혀진 유전자와 병을 이겨내는 능력이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두 유전자를 한 식물체에 모으면 그 능력이 20~45% 더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이삭이 여무는 시기의 벼 키다리병 증상

❶ 환절기엔 가축도 면역력 뚝 질병 관리 주의

- 소는 호흡기 질환 백신 접종,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의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 연구 결과, 젖소의 여름철 탈수 관련 혈액 수치는 눈에 띄게 높았다. 대표적 대사성 질환인 케톤증의 발생률도 여름이 겨울보다 높아 환절기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 **한우·젖소** - 더위에 나빠진 건강 지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깨끗한 물과 품질 좋은 사료를 준다. 바닥을 건조하게 유지하고 큰 일교차에 대비해 바람막이와 보온 시설을 확인한다.
- 새끼를 갖지 못한 소는 내년 분만을 위해 9월에 수정이 되도록 발정 관찰에 신경 쓴다.
- 갓 태어난 송아지는 초유를 충분히 먹이고, 호흡기 질환 예방 백신을 접종한다. 특히, 10월은 모든 소의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기이므로 미리 준비한다.
- **돼지** - 우리 내부의 먼지와 유해가스, 냄새 등이 질병으로 이어지므로 맞은 온도(21℃ 내외)와 습도(60~80%)를 유지하고, 환기를 한다. 사료 섭취가 부족하면 출하가 늦춰지거나 아기 돼지 수가 늘어 사육 밀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쾌적한 환경을 갖추도록 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치료 방법과 백신이 없어 발생 시 경제적 손실이 클 것으로 우려되므로 소독과 차단 방역에 힘쓴다.
- 유럽이나 아프리카, 중국 등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자제하며, 이곳에 다녀온 사람이 농장에 드나들지 않도록 한다.
- **닭** - 닭장은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배설물이나 먼지를 매개로 각종 병원체에 감염되기 쉽다. 알맞은 온도를 유지(16~24℃)하고, 환경 관리에 주의한다.
- 닭장 내부와 외부 사이에 임시 공간(전실)을 만들어 전용 작업복과 신발을 바꿔 신어 교차 오염으로 인한 질병 전파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소독 모습

출처 : 농촌진흥청

6. 정책 동향

< 2019년산 마늘, 양파 과잉생산 우려

- 전남도, 파종기 앞두고 재배농가에 적정 재배 지도 나서 -

- 전라남도가 2019년산 마늘, 양파 재배가 평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 파종기를 앞둔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과잉재배를 하지 않도록 지도에 나섰다.
- 전라남도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19년산 마늘, 양파 재배의향 면적 조사 내용을 분석한 결과 평년보다 마늘은 10~12%, 양파는 7~14% 늘 것으로 전망됐다.
- 마늘, 양파 주산지인 전남, 제주의 재배 면적은 평년보다 줄어든 반면 주산지 외 충청·영남·강원 등에서는 늘어나는 추세여서 가공 등을 통해 소비량이 늘지 않을 경우 공급과잉이 우려된다.
- 전라남도는 2018년산 양파 생산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49억 원을 들여 조생종과 중만생종 양파 237ha의 면적을 사전에 조절하고, 농협을 통해 비계약물량 2만t을 수매하는 등 가격 및 수급안정대책을 적극 추진해 양파값이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 한 바 있다.
- 홍석봉 전라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관측조사 결과를 토대로 마늘, 양파 적정 재배를 유도하고 계약재배 면적을 확대하겠다”며 “농가에서도 조금만 과잉되면 가격이 폭락한다는 것을 유념해 재배면적이 적정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 출처 : 전라남도



추석 앞두고 주요 농산물 가격 안정세로 전환

- 9월 상순 배추 도매가격, 8월 하순 대비 38% 하락 -

- **(배추·무)** 최근 기상여건이 양호해지면서 배추 가격은 8월말부터 빠르게 안정되어 9월 상순에는 평년 수준으로 안정되었으며, 무 가격도 8월 하순 대비 상당 폭 하락하였다.
- 농식품부는 추석 전까지 1일 배추 100톤, 무 30톤을 전국 500여개 농협매장에서 시중가 대비 40~60%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여 가격 안정세를 견인할 계획이다.
- **(건고추)** 과실 비대기에 고온·가뭄 등으로 일부 피해가 발생하여, 8월 중순까지 가격 상승세였으나, 최근 작황 회복으로 산지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다.
 - ⇒ 9월 상순 산지가격 11천 원 대, 8월 하순(14천 원) 대비 20% 하락
- **(사과·배)** 최근 일조량 증가 등으로 과일 비대가 촉진되면서, 생산량 및 출하량이 증가하여 가격은 안정세로 전환되고 있다.
 - ⇒ 계약출하물량 1.6배 수준 확대, 알뜰과일(중·소과) 선물세트 집중 공급
 - ⇒ 중소과를 최대 30% 할인 판매하는 한손과일 7만 세트 공급, 대과 소비 쏠림 현상 완화
- **(축산물·임산물)** 축산물은 평년 수준 가격대가 유지되고 있으며, 밤·대추 등 임산물은 저장물량이 충분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공급 확대와 함께 실속형 선물세트 공급, 할인판매 등을 적극 실시한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나주시, 과일로 사랑을 전하세요... 샤인머스켓 첫 출하

- 껍질째 먹는 하트모양 망고포도 첫 출하 -

- 나주시에서 주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포도 신품종 『샤인머스켓(망고포도)』이 9월 10일부터 본격적인 출하를 시작했다.
- 나주시는 배 이외의 과수산업 육성과 신소득 작목 발굴을 위하여 포도 신품종 샤인머스켓을 도입하여 16농가 5ha에 특화작목으로 육성하고 있다.
- 샤인머스켓 포도는 18°Brix 이상의 탁월한 당도로 맛이 좋고 껍질째 먹을 수 있어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으며, 생산자에게는 저장기간이 길고 다른 포도 품종(캠벨얼리 등)보다 재배방법이 쉬워 관심도가 높은 품종이다.
- 또한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라는 풍부한 소비처가 있어 수요 전망도 매우 밝은 편이다. 가격측면에서도 도매시장 출하가가 한 상자(2kg) 2만 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주시는 “도비사업으로 추진한 1시군 1특화작물 사업을 통해 향후 2년간 샤인머스켓 포도를 확대 보급할 계획이며, 최고품질 포도 생산을 위한 재배기술 보급과 수출 활성화로 나주 지역 재배 농가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나주시

< 광양시, 추석 명절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 실시

- 9월 20일부터 이틀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합동 점검, 제수용품 집중 조사 -

- 광양시는 민족고유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농산물 및 가공품 638개 품목, 음식점 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 점검은 원산지표시 취약지인 시장은 물론 식음료소매점, 대형유통, 축산물판매업, 일반음식점 등 농축산물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 특히 추석 명절을 맞아 과일류와 나물류, 건어물, 축산물 등 제수용품 유통량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위장 혹은 혼합해 판매하는 등 부정 유통행위들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 시는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1천만 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출처 : 광양시



< 담양군, 추석 선물 담양 명품 농특산품으로 준비해요

-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 수도권 순회 운영 -

- 담양군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담양 농특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수도권을 순회하며 『2018 추석맞이 찾아가는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군은 10일부터 서울시청과 정부대전청사, 서울특별시 용산구·양천구, 대전광역시 서구청의 직원과 주민 대상 택배 주문판매를 시작으로, 9월 21일까지 서울광장, 용산역, 양천 근린공원, 대전광역시 서구청 로비 등에서 직거래 판매장을 운영, 담양의 특산물 판매 및 알리기에 나선다.
- 직거래장터에서는 청정한 담양의 자연과 지역 농업인들의 정성으로 재배한 햅쌀을 비롯해 된장, 고추장, 청국장, 감식초, 참기름, 들기름, 무차, 작두콩차, 냉동죽순, 축제품 등 다양한 품목을 시중가보다 10% 저렴하게 판매한다.
- 군은 추석맞이 직거래 행사장을 도·농간 소통과 공감을 일으키는 어울림 한마당으로 운영하고 대숲맑은 생태도시 담양의 맛과 멋을 선보여 고정 소비자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 출처 : 담양군



< 해남군, 참깨·들깨 가공상품화로 융복합산업 박차

- 이용식품 참기름·들기름 가공공장 준공 -

- 해남군이 참깨와 들깨 등 소규모 주산작목을 대상으로 한 통합마케팅에 나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 군은 9월 12일 마산면에서 이용식품 참기름&들기름 가공공장 준공식을 개최했다.
- 가공공장에서는 참깨 소규모 주산작목 연계통합 마케팅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마산면 안정농장 참깨들깨작목반 회원들이 생산한 참깨와 들깨를 이용한 참기름, 들기름, 볶은깨, 들깨가루 등을 생산하게 된다.
-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 연속사업으로 추진한 이번 사업은 참깨 생산단지 조성, 브랜드 개발, 가공 저장기술 및 상품화까지 농업의 6차 산업의 모델로 추진되고 있다.
- 소규모 주산단지를 연계해 생산에서 가공판매 시스템 구축까지 통합 마케팅 전략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 향상과 안정적인 농가소득 창출에 나서게 된다.
- 해남군은 참깨와 들깨로 생산된 가공품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해남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관내 농가들과 계약재배를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해남군





장성군, 농특산물 추석선물로 딱이야!

- 9월 7 ~ 26일 30개 지역 농특산물 집중 판매 들어가 -

- 장성군이 9월 7일부터 26일까지 19일간을 농특산물 집중 판매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홍보에 나선다.
- 장성군이 이번에 판매에 집중하는 농특산물은 햅쌀, 사과, 포도, 대추, 아로니아, 새싹삼, 새송이버섯, 과일즙, 반찬류, 장류 등 모두 26개 품목에 이른다.
- 농업인들이 직거래장터, 택배 거래 등을 통해 적극 판매해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택배비와 소포장재, 직거래장터 행사 실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 장성군은 7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광주 수완지구에서 귀농귀촌협의회 추석맞이 직거래행사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송파구청, 서울광장, 대전 정부청사, 광주합동청사, 광주 상무시민공원, 광주유통센터, KT광주정보통신센터, 목포유통센터, 장성 로컬푸드직매장 등에서 다양한 형태로 직거래행사를 실시한다.
- 장성군은 이번 판매 기간에 추석용 햅쌀이 활발하게 팔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성군은 햅쌀 시장을 적극 공략하기 위해 신동진 외에도 고급 조생종 쌀인 조명1호를 적극 보급하고 있다.
- 장성군 관계자는 “장성 농특산물의 가격은 햅쌀이 용량에 따라 1만 8,500 ~ 5만 6,000원, 반찬세트가 1만 2,000 ~ 2만 9,000원, 새싹삼이 3만 2,000 ~ 4만 9,500원, 새송이버섯이 2만 5,000 ~ 4만 원”이라면서 “가격부담이 크지 않은 만큼 고품질의 장성 농산물을 많이 구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 장성군 농특산물 가격과 구입처 정보는 장성군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yellowcity-js>)에 안내되어 있다.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 일본, 홋카이도 지진... 식탁물가에 직격탄

- 홋카이도를 덮친 지진으로 식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감자, 당근, 토마토 등 홋카이도산 비중이 높은 채소 출하와 수송이 정체되어 일부 품목의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출하는 서서히 회복되고 있으나, 복구에는 지역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 진원지 근처에서 토마토를 재배농가 무라타씨는 부서진 비닐하우스와 밭을 보면서 할 말은 잊었다. 수년전 꽃에서 토마토로 작목을 전환해, 지금은 21개동의 하우스로 연간 5톤을 수확하여 약 2천만 엔(한화 2억 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 지진직전에 태풍으로 하우스가의 반 정도가 비닐이 벗겨져 보수하려는 순간 지진이 발생했다. 지진으로 토마토 생산면적의 거의 반이 무너졌으며, 여진으로 인해 차량에서 숙박하고 있어, 체력적으로 한계에 달했지만, 상처가 없는 토마토를 수확하는데 여념이 없다.
- 직접피해를 받지 않은 지역도 정전으로 채소를 선별하는 기계가 작동하지 않고, 화물열차도 멈췄다. 전력 공급의 재개로 출하는 다소 회복했지만, 화물열차의 복구가 15일 이후에나 가능한 구간도 있다.
- 호쿠렌 농협협동조합 연합회 오비히로 지소에 따르면 홋카이도 동쪽의 토카치지방에서는 60%를 철도에 의존하고 있어 감자와 양파 등의 운송에 영향이 발생하고 있다.

- 또한 JA시호로 마을은 11일부터 운행 예정이던 사이타마행 감자전용 열차가 운송이 어려워 트럭으로 토마코마이 등으로 운송해서 배로 수송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무와 당근, 브로콜리는 트럭운송 비율이 높아 회복속도는 빠르다고 한다.
- 도쿄 오타시장에서는 10일 홋카이도산 당근이 지진전의 4일에 비해 약 60% 가격이 상승, 무는 10%정도 높게 거래되었다고 한다.
- 다만 도매업자는 “10~11일은 입하되는 물량이 다소 적지만, 입하량이 회복되고 있어 점차 부족한 상황은 해소될 것이다”라고 전했다.
- 시사점으로 금년은 특히 일본에서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와 한파와 폭염 등의 영향으로 한국산 신선농산물의 일본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되는 추세이며, 토마토, 파프리카 등 한국 내 주요 수출품목의 경우 일본의 출하동향, 도매시장 가격 등 시장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수급이 부족한 지금시기를 잘 활용한다면 수출물량 확대와 신규 공급처 개척이 가능할 것이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도쿄도 도매시장 거래 홋카이도산 가격동향]

구분	9/4일	9/10일	증감
채소 출하	1,379톤(204엔/kg)	1,048톤(253엔/kg)	물량 24%감소/ 가격 24% 상승
무	116엔/kg	124엔/kg	7% 상승
당근	141엔/kg	185엔/kg	31% 상승
감자	135엔/kg	140엔/kg	4% 상승
양파	109엔/kg	117엔/kg	7% 상승

< 자율주행 식품 배달 서비스인 AutoX 런칭

- 캘리포니아의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으로 자율주행(self-driving) 식품 배달 서비스인 AutoX가 런칭됨. 이 서비스는 소비자들이 앱을 통해 미리 주문하거나 서비스 차를 불러서 차에 있는 식품들을 선택하는 것임.

***스타트업(startup) :** 실리콘 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신생 창업기업으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기 이전 단계라는 점에서 벤처기업과 차이가 있음. 1990년대 후반 닷컴버블로 창업 붐이 일어났을 때 생겨난 용어로, 보통 고위험·고성장·고수익 가능성을 지닌 기술·인터넷 기반의 회사를 지칭함.

- AutoX는 실리콘밸리 근방의 다른 도시들로 서비스를 확장될 계획이며, 현재 온라인소매점인 GrubMarket에서 상품을 받고 있지만, 향후 다른 소매상들과도 제휴할 계획임.
- AutoX 서비스 차량은 상품들이 신선하게 유지되고, 요거트, 주스와 스낵들을 저장할 수 있도록 온도조절 환경을 갖추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슈퍼마켓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 줄 서 있는 동안 간단하게 상품들을 선택하는 것과 비슷한 경험을 제공한다고 함.
- 슈퍼마켓 체인인 Kroger가 자율운전 차량인 Nuro를 통해 식품배달 서비스를 시험하기로 하면서, 소매업체들과 스타트업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그로서리 차량 서비스를 런칭하기 시작함. 이런 경쟁대열에 있는 Robomart사는 운전자 없는 배달 기술을 올 가을에 시험 운행할 것이며, 월마트는 최근 Waymo와 파트너십을 맺음.



무인 식품 배달 서비스 차량 (사진출처: AutoX, Robomart, Nuro)

- 이런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만, 기존 배달 비용의 80%가 인건비와 경비에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무인배달 서비스는 궁극적으로 식품상들에게 배달의 효율성과 인건비 절감으로 이익을 줄 것이라고 함.
- 업계는 온라인쇼핑이 소비자들에게 나날이 친근해지면서, 식품구매에 AutoX를 사용할 동기를 부여할 것이라고 전망함. 특히, 소비력이 크고, 편리함, 신선함, 건강한 식품에 관심이 많은 젊은 쇼핑객들에게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남.
- AutoX가 여러 가지 면에서 무인배달과 비슷한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지만, 단순한 무인배달 서비스 이상으로 독자적인 부가가치(value-add)를 제공함. 많은 쇼핑객들은 제3자가 신선식품 등 식품을 대신 골라서 배달하는 서비스를 꺼리는데, AutoX는 이런 단점을 보완하여, 소비자들이 차에 있는 식품들을 직접 고를 수도 있도록 함.
- 다른 단점은 소비자들의 무인운전차량의 안전에 관한 우려인데, 소비자들을 집에서 태워서 상점까지 데려다주도록 하는 월마트의 자율운행 차량 시험 서비스 이용은 2017년에서 2018년 사이에 현저하게 감소함.
- 그럼에도, 컨설팅 그룹인 Deloitte의 부사장이면서 자율주행기술의 선두주자인 Craig Griffi는 “전반적으로 자율운행 기술의 수용은 짧은 기간 동안에 빠르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자율운행자동차 기술이 시장에서 보편화되기 위한 장기투자의 시발점에 있다고 함.
- 업계는 자율운행 자동차 서비스가 식품상들에게 영향력 있는 차별화 전략이 될 것이 분명하며, 어떤 창조적인 프로그램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대중들에게 부각될지, 이 기술이 혁신기술에서 보편화되는데 얼마나 걸릴 지를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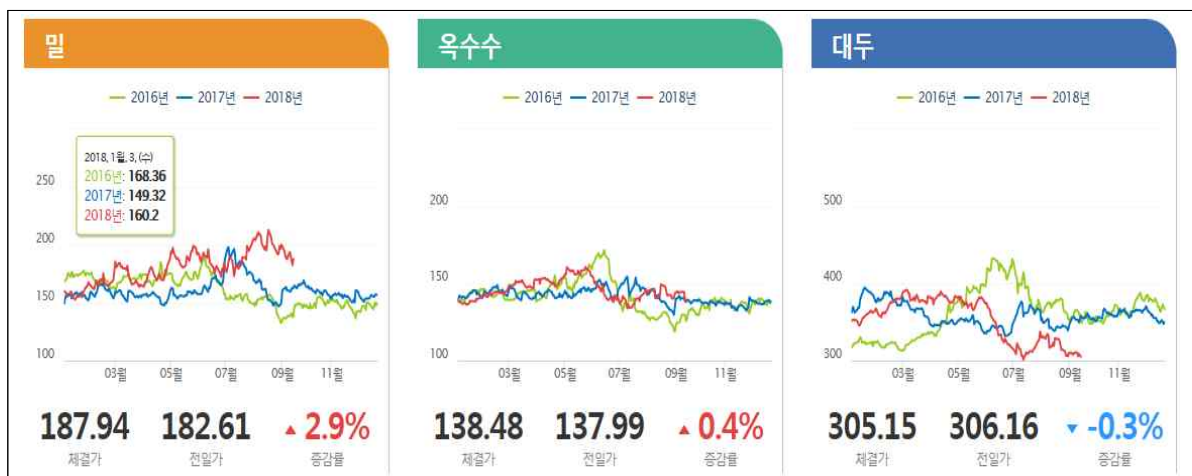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8. 9. 17. 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선물가격, 저가 매수세와 환매수로 3일 만에 반등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2.9% 상승했다. 밀 선물가격은 저가 매수세와 환매수로 인해 3일 만에 반등했다. 상인들은 미국의 공급이 밀 수요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고 했지만 수출 혼조세가 밀 시장을 뒷받침했다. 러시아의 식품안전감시국은 구매자의 불만과 낮은 품질로 인해 수출 곡물에 대한 품질 관리를 강화했으며, 이는 수출을 제한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 옥수수 선물은 전일 대비 0.4% 상승했다. 옥수수 선물가격은 밀 시장이 3일 만에 반등한 상승세에 힘입어 상승했다. 하지만 다가오는 수확기로 인해 상승폭이 제한되었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3%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중국과 무역전쟁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기록적인 수확 기대감으로 인해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품 2,000억 달러에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대두박과 대두유 또한 하락했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 제6기 전남농업마이스터대학 교육생 모집

- 원서접수 : 2018. 9. 3. ~ 10. 31.
- 모집인원 : 16전공 320명(전공별 20명)
- 접수방법 : 품목전공별 해당 캠퍼스에 우편, 방문, 팩스 접수
- 모집 전공 및 연락처

캠퍼스명		주소 및 문의처	품목전공
대학 본부	순천대학교	(우)57904 주소: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80 순천대학교 IT기반첨단농업센터 102호 (순천대학교 서면 부속농장) 전화:061-750-6415, 팩스:061-983-0203	친환경 한 우 참다래 토마토 매 실 조경수
		(우)61186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농업실습교육원 102호 마이스터행정실 전화:062-530-5088, 팩스:062-530-5086	한 우 흑염소 고 추 버 섯
			조 미 채 소
			약 용 작 물
			무화과
캠 퍼 스	목포대학교	(우)58554 주소:전남 무안군 청계면 영산로 1666 목포대학교 생활과학관(B23) 3109호 전화:061-450-2997, 팩스:061-450-2379	복숭아
			딸 기
	전남 농업기술원	(우)58213 주소: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전남농업기술원 농업교육과 전화:061-330-2735, 팩스:061-336-2121	블 루 베 리
			시 설 채 소
	(사)한국온실 작물연구소	(우)57325 주소:전남 담양군 수북면 한수동로 362 전화:061-381-2893, 팩스:061-381-3645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전남 농수산물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세요

- 9월 15 ~ 18일까지 38개 농가 서울광장 직거래장터 참가 -

- 생명의 땅, 으뜸 전라남도가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 최대 규모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 참여했다.
- 전라남도는 18일까지 4일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농촌과 도시가 함께 상생하는 2018년 추석명절 농수특산물 서울장터』에서 전남 농수특산물 판촉활동을 벌였다.
- 매년 개최하는 서울장터는 전국 120개 시군에서 생산된 농수특산물을 판매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직거래장터다.
- 전남 21개 시군, 38농가가 여수 돌산갓김치, 나주 배, 곡성 곱감, 영광 굴비, 완도 다시마 등 전남을 대표하는 364개 품목을 시중가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 깨끗한 물과 공기, 기름진 땅, 따뜻한 기후 조건을 갖춘 전남지역에선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수축산물이 생산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전국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전국 육지부 중 유일하게 구제역 청정지역도 유지하고 있다.

* 출처 : 전라남도



◀ 올 추석은 해피굿팜에서 우리 농산물로 선물하세요

- 농업인이 생산·판매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친환경쇼핑몰인 『해피굿팜』에 모싯잎 송편, 한과, 곱감, 잡곡세트, 유정란, 수제 유가공품 등 다양한 선물상품을 전시하였다.
- 해피굿팜(<http://shop.goodfarm.net>)은 농업인들의 온라인 직거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전남농기원에서 2012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쇼핑몰에는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식품 약 800개의 상품이 등록되어 판매되고 있다.
- 2017년 결성된 해피굿팜운영 협의체는 농식품의 모바일거래 증대와 소비트렌드 변화에 따라 농식품 직거래를 확대하기 위하여 공동판매 등을 실시하고 있다.
- 김성일 전남농업기술원장은 “농업인 영농활동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 농산물 판매라고”하면서 “우수한 농식품 온라인판매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마케팅 전략”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청렴한세상 - 아들의 이름을 지운 청백리 정갑손 선생 일화



함경도 감사로 있다가 임금의 부름으로 궁에 다녀오는 길에 우연히 함경도 향시에 있던 아들의 이름을 본 정갑손 선생은 아들의 공부가 부족함을 들어 아들의 이름을 지워없애고 사관도 파면했다고 하니 그의 시호인 정절 貞節대로 끝은 일에 흔들리지 않는 정貞 청렴을 좋아해 욕심을 이기는 절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일화라 하겠다.



국민권익위원회
Korea Commission on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다음 주 (9월 24일) 주간전남농업이 추석 연휴

관계로 휴간할 예정입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이 되길 기원하며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VOL. 202

주간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